

개인의 빅 5(BIG-5) 성격적 특성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도묘연 | 계명대학교**

차현진 |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Big 5)을 중심으로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참여동기로 설정하고, 참여동기와 외향성 및 개방성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진보적 이념과 외향성 및 개방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반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외향성은 물질주의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가치관과 이념과 결합할 때만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에 서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성격적 특성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성격적 특성, 시위 참여, 가치관, 정치적 이념, 외향성, 개방성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4093484). 그리고 2022년 6월 30일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 정치적 이념, 그리고 성격적 특성(BIG-5)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위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시위 참여의 주요한 동기로 설정하고, 그 참여동기를 직접적 행동으로 이끄는 성격적 특성의 영향력을 환기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시위는 공과금 납부 거부, 파업 및 점거 활동, 서명 활동 등과 함께 비제도적인 정치참여의 한 유형이자 사회운동(social movement)과 같은 집합적 저항행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시위가 사회에 무질서를 야기하는 일탈적이고 아노미적 행동으로 규정되기도 했다(Gamson 1990). 그러나 시위가 점차 제도화 및 보편화됨에 따라 시위 또한 관습 정치의 일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Meyer and Tarrow 1998).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투표와 같은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시위의 일상화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고, 2016-17년 촛불집회는 그 흐름을 심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도묘연 2022).

이처럼 시위가 보편적인 정치참여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에서 시위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확산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원동원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인지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emotion) 및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 등을 원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 네트워크 관여도, 정치적 효능감, 신뢰, 그리고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 등을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해 왔다(도묘연 2021; 2022). 이러한 성과에서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격적 특성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행태와 연관된 변수임에도(Caprara and Vecchione 2013),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외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시위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 및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설정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Anderson 2009; Gerber et al. 2010; Mondak et al. 2010 a; 2010b; Mondak and Halperin 2008; Weinschenk 2017;). 특히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은 시위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ondak et al. 2010b; Weinschenk 2017). 시위 참여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외향적이거나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 비용에 덜 민감하여 시위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Cha 2016). 나아가 해외의 경우 전통적 요인과 개인적 성격을 결합하여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Brandstätter and Opp 2014; Cha 2016; Opp and Brandstätter 2010).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하상웅 외 저자들(Ha 2019a; 2019b; Ha and Kim 2013; Ha et al. 2013)과 차현진(Cha 2016)의 연구 이외에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통적인 정치참여 이론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되, 국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최근의 연구 경향에 부응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격적 특성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라는 참여동기가 실제 시위라는 행동으로 실제화되는데 성격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시위 참여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있어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투표 등의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와 비교하여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Corrigan-Brown 2012). 따라서 시위 참여를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와 더불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 낼 요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 연구는 다른 전통적 요인에 비해 특정한 민감한 시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형성된

집합적 경험인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시위 참여 동기로 설정한다. 물론 개인은 특정한 가치관 혹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 비용에 덜 민감한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진다면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 동기를 형성하고, 참여 동기가 실제 시위 참여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성격적 특성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시위 참여에 미치는 통제변수 및 세 가지 요인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하여 구체화된다. 분석 대상은 2016-17년 촛불집회 이후의 시위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한국 시위 참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개인적 성격과 시위 참여에 대한 관심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외적으로 하상웅 외 저자들(Ha et al 2013)과 차현진(Cha 2016)은 개인적 성격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했으나, 인권시위 혹은 시위의 일상화가 심화된 2016-17년 촛불집회 이전의 시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가의 주요한 변수라는 점을 환기하는 동시에 촛불집회 이후 시위의 보편화 혹은 일상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II. 문헌 검토 및 가설 설정

1. 한국의 시위 참여 요인

일반적으로 개인의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요인으로는 크게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네트워크 및 결사체, 정치적 효능감 및 신뢰, 가치와 이념 등을 들 수 있다(도묘연 2021; 2022). 이러한 요인들은 자원동원론에 기반을 둔 관점과 참여동기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네트워크 및 결사체 활동은 개인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무를 강조하는 자원동원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과 성별은 한국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변수이다. 선행 연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김기동·이정희 2017; 김대욱·이승중 2008; 김욱 2013; 도묘연 2021; 류태건 2013; 박찬욱 2005; 이양수 2006; 이혜인·홍준형 2013; 차현진 2022). 젊은 사람일수록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나 전일제 근무에 대한 책임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Wiltfang and McAdam 1991). 또한 성별과 시위 참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시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김기동·이정희 2017; 김대욱·이승중 2008; 박찬욱 2005;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은 여성이 남성보다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자원을 취득할 기회가 적다는 입장(McAdam 1992; Schlozman et al. 1994; Verba et al. 1997)과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역할이 달라 나타나는 정치 사회화의 결과라는 입장(Campbell et al. 1960; Dalton 2014; Lane 1959)으로 구분된다. 결과적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자원을 보유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조한 연구들 역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자원의 보유 여부가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 정보, 효능감 등의 시민적 정향이 발전하기 때문에 정치참여의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Verba and Nie 1972). 한국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위 참여에 적극적이었다(김기동·이정희 2017; 류태건 2013; 박찬욱 2005;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이혜인·홍준형 2013; 차현진 2022). 이는 정치적 지식이 가장 능동적인 형태의 정치참여인 시위 참여에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강조한 퍼트남(Putnam 2000, 35)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네트워크 혹은 결사체 역시 시위 참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자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운동 네트워크(장수찬 2005),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사용(송경재 2014; Choi and Shin 2017), 결사체 활동(도묘연 2021; 2022), 조직의 관여 및 동원 경험(김대욱·이승중 2008; 김옥 2013; 박찬욱 2005)을 강조한다.

한편, 정치적 효능감, 신뢰, 가치관, 그리고 이념은 개인의 참여 동기로서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 중에서도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는 특정한 시기의 정치사회 행위자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시위 참여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 관점에서의 참여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이 한국의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나 정당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김대욱·이승중 2008; 류태건 2012; 주인석·이진석 2012),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한나 2016; 이혜인·홍준형 2013). 이는 각 연구가 분석한 시기와 그 시기에 개인이 평가하는 정부 및 정치사회 행위자가 달라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효능감을 강조한 연구들은 개인이 스스로 정치과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각인 내적 효능감이나 혹은 정부나 정부체제와 같은 외부의 대상이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인 외적 효능감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김욱 2013; 김한나 2016; 김혜정 2010; 류태건 2011; 장수찬 2005; 정한울·이곤수 2013). 그러나 신뢰와 유사하게 특정한 시기별 정치사회 행위자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적 및 내적 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신뢰와 달리 상대적으로 탈물질주의 혹은 물질주의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은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만하임(Mannheim 1952)의 이론을 차용한 잉글하트(Inglehart 1990)의 사회화 가설을 원용하면, 가치관은 특정한 생애주기 동안 지속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위를 독려하는 참여 동기가 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잉글하트의 이론을 수용한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으로써 정치적 항의 활동 혹은 시위 참여 간의 친화성을 증명해왔다. 한국의 경우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은 정치적 효능감, 정치신뢰, 정치적 이념 등을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도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증명되어 왔다(어수영 2004; 조기숙·박혜윤 2008; Cho and Park 2019; 김욱 2010). 또한 최근에는 IMF 구제 금융 시대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성장기를 겪은 세대들이 물질주의 가치를 지속해서 가지되면서 물질주의의 가치관 역시 한국 시위 참여의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도묘연 2022).

탈물질주의 및 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유사하게 정치적 이념 역시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총체(Erikson and Tedin 2003, 64)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참여동기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정치 이념과 한국의 시위 참여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보수적 성향보다는 진보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강경태 2005; 김기동·이정희 2017; 김대욱·이승중 2008; 김욱 2013; 도묘연 2021; 류태건 2011; 2013; 박찬욱

2005; 이혜인·홍준형 2013; 차현진 2022; Cha 2016). 그 배경으로는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보수적인 사람보다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시위 활동 자체가 진보 진영의 레퍼토리의 일부로 고려되기도 하였다(Dalton et al. 2010).

2. 빅 5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주로 정치심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때 성격적 특성(personality traits)이란 생각, 느낌, 행동의 지속된 행태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차이를 의미한다(McCrae and Costa 1990, 23). 정치심리학에서 성격의 다양한 측면은 빅 5 요인으로 측정 및 활용되어 왔다. 이는 성격의 5개 요인 모형(FFM: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을 기반으로 하며, 성격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동시에 광범위한 연구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Gosling et al. 2003: 506).

빅 5란 개인의 성격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 내 상반된 특질의 스펙트럼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빅 5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5개의 기본 특성으로 구성된다.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문화에 대한 흥미를 의미하고, 폐쇄성과 상반되는 특성이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질서를 추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개인의 경향을 의미한다. 외향성(extraversion)이란 다른 상황에서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을, 그리고 친화성(agreeableness)은 이타주의, 관대함, 충성심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감정과 자극을 통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Caprara and Vecchione 2013, 30-31; John and Srivastava 1999, 121). 각 성격적 특성을 묘사한 표현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빅 5 성격적 특성의 구체적인 묘사

개방성	혁신적인,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성실성	근면한, 신뢰할 수 있는, 꼼꼼한
외향성	역동적인, 활동적인, 사교적인
친화성	친절한, 정직한, 솔직한
정서적 안정감	차분한, 참을성이 있는, 편안한

자료: Caprara and Vecchione(2013, 30-31)을 참고하여 작성

해외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빅 5의 성격적 특성 가운데 개방성과 외향성은 시위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방적인 사람들은 경제 및 사회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Gerber et al. 2010), 소셜 네트워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Mondak et al. 2010a), 시민조직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Ha 2019a). 특히 한국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다(Ha 2019b). 또한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관적 행복 지수(Ha and Kim 2013)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Ha 2019b)이 높았던 반면,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는 낮았다(Ha 2019b). 이 외에도 개방적인 사람은 자원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Bekkers 2005; Omoto et al. 2010). 개방성과 선거 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몬다크 외 저자들(Mondak et al. 2010a)은 투표참여를 비롯한 정당 후원과 다양한 선거 관련 활동에 개방적 성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개방성과 외향성은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과 달리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개방성은 한국에서의 인권시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Cha 2016; Ha et al. 2013). 아메리카 대륙의 2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와인센크(Weinschenk 2017)는 개방성이 24개국 중 가이아나(Guyana)의 시위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외향성은 미국, 캐나다 및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ndak et al. 2010b; Weinschenk 2017).

나아가 외향성은 제도적 정치참여보다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친화성이 높았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각종 정치 및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은 정치 활동과의 연계로도 이어진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이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향성은 선거와 관련한 캠페인 모임과 집회 등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반면, 투표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ondak and Halperin 2008; Mondak et al. 2010a).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정치 토론(Anderson 2009)과 청원 참여와 같은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Mondak and Halperin 2008).

반면, 정서적 안정성과 친화성 및 성실성은 대체로 시위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정서적 안정성은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a 2016; Weinscheck 2017). 이러한 결과는 친화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등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친화성과 시위 참여의 부정적 영향은 검증되었다(Ha et al. 2013; Weinschenk 2017). 성실성의 경우는 시위 참여에 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국, 미국,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서는 시위 참여 가능성이 감소한 반면(Ha et al. 2013; Mondak et al. 2010b; Weinschenk 2017), 파나마에서는 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했다(Weinschenk 2017).

최근의 성격적 특성과 시위 참여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성격적 특성과 다른 요인을 결합하여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Brandstätter and Opp 2014; Cha 2016; Opp and Brandstätter 2010). 이들 연구에서는

개방성과 외향성이 정치 관심, 정치적 효능감, 정치 토론과 증재되어 시위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규명되었다(Gallego and Oberski 2011). 또한 개방성과 사회적 인센티브의 결합은 시위 참여 의향을 증가시킨 반면, 친화성과 사회적 인센티브의 결합은 시위 참여 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dstätter and Opp 2014; Opp and Brandstätter 2010). 특히 한국을 사례로 한 차현진(Cha 2016)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개방적이거나 외향적일수록 진보적 정향과 인권에 대한 지식 수준이 시위 참여를 확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인권시위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에서 성격적 특성과 이념 및 지식을 함께 고려한 초기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전통적 요인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위 참여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른 정치참여 방식과 달리 참여비용이 높은 시위 참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3. 주요 가설

앞선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전통적 요인과 함께 대표적으로 개방성과 외향성이라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도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성격적 특성을 시위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변수로 설정하는 동시에, 최근의 연구 경향에 부응하여 전통적 요인과 성격적 특성을 결합한 가설을 제시하여 시위 참여의 요인을 분석한다. 주요한 연구가설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축했다.

첫째, 장기적인 참여 동기라는 관점에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변수로 설정한다. 자원동원론에 기초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시위 참여에 요구되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위에 참여하려는 의향인 참여 동기에 초점을 둔다. 이 때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은 시

위 참여를 촉발하는 선제 조건인 공감을 불러내는 동시에 일정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고유의 속성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 요인과 구분되는 장기적인 참여 동기로 정의된다.

개인이 시위 참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단계별로 제시한 클랜더만스(Klandermans 1997)는 시위 참여의 선행조건으로 시위 주제에 대한 공감을 제시한다. 즉 시위 주제 및 목표에 대한 공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위한 동원 잠재력(mobilization potential)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은 시위에 참여하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참여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두 요인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만하임(Mannheim 1952) 이론을 차용하여 탈물질주의 가치관 시위 참여의 관련성을 제시한 잉글하트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민감한 시기(impressionable year)”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Inglehart 1990). 정치적 이념 역시 가치관과 유사하게 한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적절한 질서와 그 질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총체를 의미한다(Erikson and Tedin 2003, 64)는 점에서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자원동원론과 달리 정치적 효능감이나 신뢰 역시 시위 참여 의지나 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효능감이나 신뢰는 상대적으로 내면화된 탈물질주의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이념에 의해 혹은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사회 행위자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내면화된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은 시위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장기적인 참여 동기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참여 동기 중 정치적 이념은 진보적 정향에 초점을 두어 주요한 가설을 설정한다.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효과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안이다. 그 중에서도 진보적 정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실제로 한국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보적 정향과 시위 참여의 친화성을 증명했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성향이 시위 참여와 맞닿아 있

다는 논의를 수용한 것이다.

시위(protest)는 시민들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비관습적인 방식의 집합적 정치참여 행동이다(Taylor and Dyke 2004: 263). 물론 이념(ideology)은 사회과학 분야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elusive)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McLellan 1986, 1), 설명 대상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측면인지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적(orthogonal)일 수 있다(Jost et al. 2009). 그럼에도 보수는 “체제 유지(system maintenance)”, “질서(order)”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높고, 진보는 “체제 변화(system change)”, “평등(equality)”, “연대 의식(solidarity)”, “시위(protest)” 등의 단어와 연관성이 높다(Fuchs and Klingemann 1990, 213-214). 이는 진보적 이념이 기존의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시위 참여와 친화성을 가진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셋째, 빅 5의 성격적 특성 중에는 개방성과 외향성을 중심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빅 5의 성격 중 개방성과 외향성이 시위 참여를 포함해 개인의 정치행태와 관련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방성과 외향성은 참여 동기인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을 실제 시위 참여로 이끄는 변수로 설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위 참여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위는 투표참여나 다른 유형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비교하여 높은 참여 비용이 요구되는 정치행동이며, 그 만큼 시위참여에는 더 많은 시간과 활동력이 요구된다(Corrigan-Brown 2012). 따라서 개인이 실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참여 동기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으로 이끄는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격적 특성은 시위 참여 동기를 가진 개인이 실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은 특성(traits), 욕구(needs), 가치(values), 사회적 태도(attitudes)와 같은 상이한 구성 요

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선호나 행동을 구체화한다(Caprara and Vecchione 2013, 23). 이들 구성 요소 가운데, 개인의 욕구와 가치는 개인 스스로의 관점과 삶에서 소중한 것에 관련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특성(traits)은 사람들의 습관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행태적인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Caprara and Vecchione 2013).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시위 참여와 같은 행동이나 행태를 촉진하는 본질적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외향성은 개념 정의 자체에서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치심리적 요인을 강조한 선행연구 또한 외향성이 빅 5의 성격적 특성 가운데 시위 등의 정치참여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Weinschenk 2017).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흥미를 갖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는 개방성 역시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그 결과 개방적인 사람은 시위 참여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난 발상에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일 것이다. 따라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나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이 외향적이거나 개방적인 성격을 보일 경우 시위 참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참여동기로 설정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 그리고 개방성과 외향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은 시위 참여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인간의 행동과 연관된 성격적 특성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시위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유한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혹은 개방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가설 2]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혹은 개방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Ⅲ. 연구 설계와 측정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에 의해 2020년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다. 물론 온라인 조사는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해당 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성별, 나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례층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일정한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종속변수인 시위 참여의 경우 촛불집회와 구별되는 일반 시위 참가를 묻는 설문 문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자료의 조사 시기를 고려할 때 촛불집회와 일반 시위 참여에 대한 응답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 가지 시위 참여를 구분하는 문항 설정은 기본적으로 촛불집회와 구별되는 일반 시위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했다.

그럼에도 실제 설문조사 자료는 분석을 위해 일정한 수정이 필요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당초 1,68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일반 시위 참여에 대한 문항은 “참가한 경우”,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시위 참여 여부에 초점

을 두기 때문에 시위 참여자와 비참여자 각각 352명과 823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¹⁾ 물론 “의사는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시위 참여자로 볼 수 없어 비참여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진짜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경우 비참여 집단의 특성이 과대 반영되거나 왜곡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치관, 정치적 이념,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두 가지 참여동기와 외향성 및 개방성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가치관 변수인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세부 변수의 타당성 검증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시위 참여 집단 및 비참여 집단별로 나타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일반특성은 분산분석과 카이제곱(χ^2 -test)으로 검증하여 제시했다.

2. 분석 변수의 타당성 검증: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

연구 모형의 구축에 앞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세부 변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잉글하트(Inglerhart 1990; 1997)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이미 검증되었다. 이들은 잉글하트의 방식을 차용하여 설문 문항을 제시한 후 응답자들의 선택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가치관을 유형화하거나 혹은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를 정의하는 지수를

1) 분석대상 1,175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21명(18.8%), 부산 84명(7.2%), 대구 65명(5.5%), 인천 67명(5.7%), 광주 39명(3.3%), 대전 35명(3.0%), 울산 31명(2.6%), 경기 283명(24.1%), 강원 38명(3.2%), 충북 34명(2.9%), 충남 42명(3.6%), 전북 43명(3.7%), 전남 38명(3.2%), 경북 53명(4.5%), 경남 71명(6.0%), 제주 18명(1.5%), 세종 13명(1.1%)이었다. 성별과 연령별 분포는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안해 왔다(도묘연 2022). 따라서 두 가치관의 구성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생존에 필수적인 신체적 및 물질적 안전의 욕구로, 그리고 탈물질주의는 소속감, 애정, 존중, 자아실현, 권익옹호 등 욕구로 대변된다. 두 가지 가치관을 유형화하기 위해 당초 잉글하트의 전통을 따르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변수의 목록(도묘연 2022; 정병기 2018; Cho and Park 2019)을 확정된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차선책으로 크롬바흐 알파 분석을 통해 두 가지 가치관의 개념적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세부변수의 타당성 검증 결과

구분	측정변수	평균	표준 편차	변수제거시 α 계수	전체 α 계수
물질주의	경제성장 달성과 경제안정	5.94	1.19	0.6828	0.7795
	국방비 등 방위력 증강	5.02	1.26	0.7710	
	국가 및 사회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 소탕	5.70	1.12	0.7018	
	물가상승 억제	5.48	1.17	0.7453	
탈 물질주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	4.85	1.05	0.7554	0.7957
	환경보호	5.52	1.19	0.7626	
	정부정책 결정에 국민참여 확대	5.37	1.12	0.7375	
	언론자유 보장	5.22	1.32	0.7833	
	돈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5.11	1.15	0.7464	

*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3. 연구 모형

<표 2>의 가치관에 대한 신뢰성 분석에 기초하여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차관, 정치적 이념, 성격적 특성, 그리고 이들 세 변수의 상호작용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구축했다. 종속변수인 시위 참가는 참가여부로 측정했다.

독립변수 중 성격적 특성은 빅 5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측정 방식과 변수를 활용했다(김지범 외 2019; Ha et al 2013; Cha 2016). 그리고 통제변수는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성별, 연령, 교육, 소득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불만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효능감 및 신뢰를 추가했다. 이는 시위 참여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엘리트에 대한 불신에서 발화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모형1] 기본 모형

$$\ln y_j = \alpha + \sum_{i=1}^2 (\beta_i * m_i) + \sum_{i=1}^3 (\gamma_i * id_i) + \sum_{i=1}^5 (\delta_i * c_i) + \sum_{i=1}^4 (\epsilon_i * sc_i) + \sum_{i=1}^2 (\zeta_i * pc_i)$$

[모형2] 상호작용 모형

$$\ln y_j = \alpha + \sum_{i=1}^2 (\beta_i * m_i) + \sum_{i=1}^3 (\gamma_i * id_i) + \sum_{i=1}^5 (\delta_i * c_i) + \sum_{i=1}^4 (\epsilon_i * sc_i) + \sum_{i=1}^2 (\zeta_i * pc_i) + \sum_{i=1}^2 (\eta_i * c_i * m_i) + \sum_{i=1}^2 (\delta_i * c_i * pc_i)$$

여기서 y_j 는 j 시위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β_i 는 가치관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m_i 는 가치관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물질주의, 2=탈물질주의)

γ_i 는 이념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id_i 는 이념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주관적 이념, 2=보수정당지지, 3=진보정당지지)

δ_i 는 성격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c_i 는 성격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외향성, 2=개방성, 3=친화성, 4=성실성, 5=안정감)

ϵ_i 는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sc_i 는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성별, 2=연령, 3=학력, 4=소득)

ζ_i 는 정치적 불만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pc_i 는 정치적 불만 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제도 신뢰 지향도, 2=외적 효능감 지향도)

η_i 는 성격과 가치관 상호작용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θ_i 는 성격과 주관적 이념 상호작용 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α 는 상수항

위의 연구 모형에서 확인되듯이, 연구목적에 맞추어 실제 분석은 기본 모형과 상호작용이 전제된 경우로 구분하여 수행했다. [모형1]은 세 가지 차원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추론하는 기본 모형이다. 반면 [모형2]는 [모형1]에 더하여 독립변수 중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 정치적 이념 그리고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모형이다.

한편, 통제변수 중 정치적 불만 변수는 다시 개념화하여 구성하였다. 즉 제도 신뢰 지향도와 외적 효능감 지향도로 조작화한 것이다.²⁾ 이는 제도 및 사회 신뢰와 외적 및 내적 효능감이라는 세부 유형에 따라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

2) 제도 신뢰 지향도와 외적 효능감 지향도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부(-)로 추정되면 상대적으로 사회 신뢰와 내적 효능감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된다.

를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구성했다(도묘연 2021). 나아가 분석 모형 상의 문제, 즉 외적 및 내적 효능감을 동시에 모형에 포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관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분석 변수와 그 측정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변수의 정의와 척도

구분	분석변수		정의	척도
종속 변수	시위 참여		시위 참여(1)/(0)	명목
독립 변수	가치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표 2> 타당성 검증 결과 참조	7단계 리커트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	이념적 정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1진보, 6중도, 11보수)	11단계 리커트
		지지 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 정당 보수: 미래한국·우리공화(1)/기타(0) 진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정의(1)/(0)	명목
	성격적 특성	외향성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내성적이다. 조용하다(역코딩)	7단계 리커트
		개방성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복잡다단하다 변화를 싫어한다. 창의적이지 못하다(역코딩)	
친화성		비판적이다. 논쟁을 좋아한다(역코딩) 동정심이 많다. 다정다감 하다.		
성실성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정리정돈을 잘못한다. 덤벙댄다(역코딩)		
	정서적 안정감	근심 걱정이 많다. 쉽게 흥분한다(역코딩)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		
통제 변수	사회 경제적 요인	성별	남(1)/여(0)	명목
		연령	18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재/졸, 4년대재/졸, 대학원 석사재/졸, 대학원 박사재/졸	

구분	분석변수		정의	척도
정치적 불만		소득	100만원 이하-1,000만원 이상 11개 구간	7단계 리커트
		제도 및 사회 신뢰 (제도 신뢰 지향도)	“대부분 공직자와 정치인은 신뢰할만함”;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임”(제도 신뢰 수준) (사회 신뢰 수준)	
		외적 및 내적 효능감 (외적 효능감 지향도)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의 생각에 관심 없음”;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음”(외적 효능감 수준) (내적 효능감 수준)	

IV. 실증 분석

1. 시위 참여 및 비참여 집단별 분석변수의 일반 특성

<표 4>은 시위 참여 집단(352명, 29.96%)과 비참여 집단(823명, 70.04%)별로 나타난 분석 변수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5.53)이 탈물질주의(5.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비참여 집단(5.18)에 비해 참여 집단(5.29)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시위 참여자들이 국가 및 지역 사회 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그리고 자기실현 및 표현의 가치를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주의 가치관은 양 집단 간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시위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경제 성장과 국방력 증대 및 국가 질서 유지와 같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이념의 경우 주관적 이념 평가에서는 참여 집단(5.12)이 비참여 집단(5.79)에 비해 진보적이었다. 또한 비참여 집단은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

서 보수 정당(참 15.9%, 비 20.3%)에, 그리고 참가 집단은 진보 정당(참 69.3%, 비 47.5%)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면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면, 보수적이면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성격적 특성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외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외향성(참 3.99, 비 3.67), 개방성(참 4.41, 비 4.05), 성실성(참 4.85, 비 4.72)은 참여 집단에서 높게 확인된 반면, 친화성(참 4.36, 비 4.65)은 비참여 집단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위 참여자들이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에 흥미를 갖고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나아가 질서를 추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과 소득 및 학력에서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령의 경우 18세-19세(참 4.3%, 비 1.8%) · 20대(참 19.9%, 비 14.8%) · 40대(참 26.4%, 비 20.9%)는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30대(참 17.9%, 비 18.1%) · 50대(참 19.9%, 비 23.9%) · 60대 이상(참 11.7%, 비 20.4)은 비참여율이 높았다. 학력에서는 초졸(참 0.0%, 비 0.1%) · 중졸(참 1.1%, 비 2.1%) · 고졸(참 12.8%, 비 21.5%) · 전문대재/졸(참 12.5%, 비 15.8%)의 경우 비참여율이, 4년대재/졸(참 60.5%, 비 50.9%) · 대학원석사재/졸(참 9.1% 비 7.1%) · 대학원박사재/졸(참 4.0%, 비 2.6%)은 참가율이 높았다.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참 1.7%, 비 6.9%) · 100-199만원 미만(참 5.4% 비 8.6%) · 200-299만원(참 16.2%, 비 16.9%) · 300-399만원(참 14.2%, 비 17.5%) · 700-799만원(참 6.5%, 비 7.9%) 구간에서는 비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400-499만원(참 14.8%, 비 14.7%) · 500-599만원(참 17.3%, 비 10.2%) · 600-699만원(참 9.1%, 비 8.0%) · 800-899만원(참 4.6%, 비 4.0%) · 900-999만원(참 3.1%, 비 1.0%) · 1,000만원 이상(참 7.1%, 비 4.3%) 구간에서는 참가율이 높았다. 이는 시위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였고, 18세

-19세와 20대 및 40대가 많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위 참여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넷째, 정치적 불만 변수 역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제도 신뢰 지향도(참 0.97, 비 0.89)는 참여 집단에서 높았던 반면, 외적 효능감 지향도(참 0.75, 비 0.86)는 비참여 집단에서 높았다. 따라서 시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평상시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높으나, 정부나 정치 체제가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다.

〈표 4〉 시위참가 및 비참여 집단별 분석변수의 일반특성

구분		전체 (n=1,175)	참여 (n=352)	비참여 (n=823)	χ^2 (df), prob./ F(prob.)	
가치관	물질주의	5.53	5.54	5.53	0.06(0.8106)	
	탈물질주의	5.21	5.29	5.18	3.95(0.0472)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	5.59	5.12	5.79	24.99(0.0001)	
	지지 정당	보수 정당 지지	223 (19.0)	56 (15.9)	167 (20.3)	$\chi^2=51.947$ (df=2), prob=0.0001
		진보 정당 지지	635 (54.0)	244 (69.3)	391 (47.5)	
		기타 정당 지지	317 (27.0)	52 (14.8)	265 (32.2)	
성격적 특성	외향성	3.77	3.99	3.67	17.02(0.0001)	
	개방성	4.16	4.41	4.05	29.19(0.0001)	
	친화성	4.56	4.36	4.65	25.78(0.0001)	
	성실성	4.76	4.85	4.72	3.96(0.0469)	
	정서적 안정감	4.17	4.19	4.17	0.08(0.7829)	
사회 경제적 요인	성 별	남	585(49.8)	189(53.7)	396(48.1)	$\chi^2=3.0669$ (df=1), prob=0.0799
		여	590(50.2)	163(46.3)	427(51.9)	
	연 령	18세-19세	30(2.6)	15(4.3)	15(1.8)	$\chi^2=25.3786$ (df=5) prob=0.0001
		20세-29세	192(16.3)	70(19.9)	122(14.8)	

구분		전체 (n=1,175)	참여 (n=352)	비참여 (n=823)	χ^2 (df), prob./ F(prob.)	
정치적 불만	30세-39세	212(18.0)	63(17.9)	149(18.1)		
	40세-49세	265(22.6)	93(26.4)	172(20.9)		
	50세-59세	267(22.7)	70(19.9)	197(23.9)		
	60세이상	209(17.8)	41(11.7)	168(20.4)		
	학력	초졸	1(0.1)	0(0.0)	1(0.1)	$\chi^2=20.6068(df=6)$ prob=0.0022
		중졸	21(1.8)	4(1.1)	17(2.1)	
		고졸	222(18.9)	45(12.8)	177(21.5)	
		전문대재/졸	174(14.8)	44(12.5)	130(15.8)	
		4년대재/졸	632(53.8)	213(60.5)	419(50.9)	
		대학원석사 재/졸	90(7.7)	32(9.1)	58(7.1)	
	대학원박사 재/졸	35(3.0)	14(4.0)	21(2.6)		
	소득	100만원 미만	63(5.4)	6(1.7)	57(6.9)	$\chi^2=39.8300$ (df=10), prob=0.0001
		100-199만원	90(7.7)	19(5.4)	71(8.6)	
		200-299만원	196(16.7)	57(16.2)	139(16.9)	
		300-399만원	194(16.5)	50(14.2)	144(17.5)	
		400-499만원	173(14.7)	52(14.8)	121(14.7)	
		500-599만원	145(12.3)	61(17.3)	84(10.2)	
		600-699만원	98(8.3)	32(9.1)	66(8.0)	
		700-799만원	88(7.5)	23(6.5)	65(7.9)	
800-899만원		49(4.2)	16(4.6)	33(4.0)		
900-999만원		19(1.6)	11(3.1)	8(1.0)		
1,000만원 이상	60(5.1)	25(7.1)	35(4.3)			
제도 신뢰 지향도	제도 신뢰 지향도	0.91	0.97	0.89	4.60(0.0322)	
	외적 효능감 지향도	0.82	0.75	0.86	13.74(0.0002)	

2. 가치관, 이념,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시위 참여에 미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독립변수인 가치관, 정치적 이념,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통제변수가 시위 참여 미친 순수한 영향력을 추론한 결과이다. [모형2]는 [모형1]에 더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이념 및 빅 5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 간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는 독립변수 중 주관적 이념($dy/dx=-0.0216$, $z=-3.00$), 진보 정당 지지($dy/dx=-0.1633$, $z=-3.60$), 친화성($dy/dx=-0.0613$, $z=-3.69$)의 부(-)의 영향력과 개방성($dy/dx=0.0299$, $z=2.04$)의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진보적 이념을 가질수록, 개방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dy/dx=0.0404$, $z=2.88$) 및 소득($dy/dx=0.0121$, $z=2.22$)의 정(+)의 영향력과 연령($dy/dx=-0.0354$, $z=-3.48$) 및 외적 효능감 지향도($dy/dx=-0.0729$, $z=-2.08$)의 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적 효능감보다는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이념 및 성격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모형2]의 경우에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개방성을 제외하고, [모형1]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친화성($dy/dx=-0.0614$, $z=-3.68$), 주관적 이념($dy/dx=-0.0991$, $z=-3.28$), 진보 정당 지지($dy/dx=-0.1604$, $z=3.54$)의 부(-)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dy/dx=-0.0336$, $z=-3.29$) 및 외적 효능감 지향도($dy/dx=-0.0727$, $z=-2.10$)의 부(-)의 영향력과 학력($dy/dx=0.0421$, $z=2.99$) 및 소득($dy/dx=0.0118$, $z=2.17$)의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은 [모형 2]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모형 1]에서 시위 참여

를 이끌었던 개방성의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인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외향성×물질주의($dy/dx=0.0413$, $t=2.21$)의 정(+)의 영향력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다소 통계적 유의성이 낮기는 하지만 외향성×주관적 이념($dy/dx=0.0100$, $z=1.82$)의 정(+)의 영향력도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적 특성 중에서 외향성만이 가치관 및 주관적 이념과 결합하여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성격과 물질주의의 가치관은 그 자체만으로 시위 참여를 이끌지 못했으나, 양자가 결합할 경우에는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외향적 성격은 보수적 이념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시위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표 5〉 가치관, 이념,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		[모형2]	
		Coef.(z)	dy/dx	Coef.(z)	dy/dx
가치관	물질주의	0.0072 (0.06)	0.0014	-0.0653 (-0.13)	-0.0129
	탈물질주의	0.1199 (1.04)	0.0239	0.6837 (1.35)	0.1348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	-0.1082 (-3.00)**	-0.0216	-0.5025 (-3.28)**	-0.0991
	보수 정당 지지	-0.0699 (-0.34)	-0.0138	-0.0471 (-0.23)	-0.0092
	진보 정당 지지	-1.0114 (-3.60)**	-0.1633	-1.0087 (-3.54)**	-0.1604
성격적 특성	외향성	0.0652 (1.05)	0.0130	-0.5415 (-1.18)	-0.1068
	개방성	0.1496 (2.04)**	0.0299	0.8941 (1.46)	0.1763
	친화성	-0.3070 (-3.69)**	-0.0613	-0.3114 (-3.68)**	-0.0614
	성실성	0.0737 (0.99)	0.0147	0.0746 (1.00)	0.0147
	정서적 안정감	0.0214 (0.30)	0.0043	0.0094 (0.13)	0.0018
사회 경제적 요인	성별	0.1167 (0.83)	0.0233	0.0890 (0.63)	0.0176
	연령	-0.1771(-3.48)**	-0.0354	-0.1705 (-3.29)**	-0.0336
	학력	0.2024 (2.88)**	0.0404	0.2135 (2.99)**	0.0421
	소득	0.0608 (2.22)**	0.0121	0.0598 (2.17)**	0.0118

구분		[모형1]		[모형2]	
		Coef.(z)	dy/dx	Coef.(z)	dy/dx
정치적 불만	제도 신뢰 지향도	0.1998 (1.80)	0.0399	0.1892 (1.68)	0.0373
	외적 효능감 지향도	-0.3652 (-2.08)**	-0.0729	-0.3687 (-2.10)**	-0.0727
상호 작용	외향성×물질주의	-	-	0.2094 (2.21)**	0.0413
	개방성×물질주의	-	-	-0.1712 (-1.49)	-0.0338
	외향성×탈물질주의	-	-	-0.1574 (-1.62)	-0.0310
	개방성×탈물질주의	-	-	0.0078 (0.07)	0.0015
	외향성×주관적 이념	-	-	0.0507 (1.82)*	0.0100
	개방성×주관적 이념	-	-	0.0410 (1.24)	0.0081
_cons		-1.2853 (-1.65)	-	-1.9372 (-0.69)	-
Log likelihood (OBS)		-652.6498 (1175)		-644.24579 (1175)	
LR chi2(16)		129.38		146.19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0902		0.1019	

** $p < 0.05$, * $p < 0.1$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차이점도 규명되었다. 특히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라는 참여동기가 성격적 특성과 결합하여 시위 참여를 이끈다는 이 연구의 주요한 가설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은 그 자체로 시위 참여를 이끄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다. 양변인 분석에서는 시위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다변인 분석에서는 기본모형인 [모형1]과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모형2]에서도 두 가지 가치관의 영향력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특성, 급진적 불만(disaffected radicalism), 사회적 자본, 이념과의 경쟁 가설 속에서도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를 추동한다는 기존 연구(Cho and Park 2019)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를 촉진한다는 잉글하트와 그 지지자들의 논의에 대한 유효성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이념 중 진보적 정향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양변인 분석에서는 진보적 정향을 가지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했다. 그러나 다변인 분석에서는 주관적인 차원의 진보적 이념은 시위 참여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형1]과 [모형2]에서 확인되었듯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의 시위 참여가 많다는 기존연구 및 일반적 통념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결과였다. 다만 설문조사가 문재인 정권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보 정당 지지자들의 시위 참여가 낮다는 결과는 해석상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대감과 반감을 드러내는 시위에 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수 정권이 집권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진보 정당을 지지할수록 시위 참여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성격적 특성 중 개방성은 시위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끄는 변수였으나, 친화성은 시위 참여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양변인 분석에서 시위 참여자들은 개방적 성향을 띠었으나, 비참여자들은 친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변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방성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모형1]에서, 그리고 친화성의 부정적 영향은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빅 5의 성격적 특성 가운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들이 폐쇄적인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동시에 인권시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반면, 이타주의적이고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시위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기존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Cha 2016; Ha et al. 2013; Weinschenk 2017). 동시에 그간 한국의 시위 참여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그 중에서 개방성이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 속에서도 시위 참여의 유효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넷째, 외향성은 참여 동기로 설정된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과 결합할 경우에만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양변인 분석에서는 시위 참여자들이 외향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나, 다변인 분석에서 외향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물질주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과 상호작용 했을 때는 시위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따라서 외향성만이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이라는 참여 동기를 실제 직접적 행동으로 유인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사회·정치적 활동과 가장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격 변수라는 논의(Weinschenk 2017)와 한국의 인권시위에서 외향성이 진보적 정향과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결합되어 시위 참여를 확대한다는 기존 연구(Cha 2016)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외향성이 가치관 및 이념과 결합되는 양상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외향성은 탈물질주의보다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합되어 시위 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즉 경제발전, 방위력 증가, 범죄 소탕 등의 신체적 및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그 자체로는 시위 참여를 촉진하지 못하지만, 높은 연령과 소득 및 결사체 활동 등의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 참여를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도모연 2022). 즉 한국 사회에서 물질주의 가치관 역시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잠재된

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넘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를 추동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복지 제도의 확장이라는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탈물질주의가 확산되었던 시대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 및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21세기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정병기 2018, 202-203).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주요한 가설 중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유한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는 주장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외향성은 진보적 이념보다는 보수적 이념과 결합되어 시위 참여를 추동하고 있었다. [모형1]과 [모형2]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진보적 이념은 시위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외향성과 상호작용이 고려된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면서도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상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향성에 의해 주관적 이념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외향적 성격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는 가설은 반대의 결과로 귀결되었다.

다섯째, 시위 참여의 전통적 요인으로 알려진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그리고 내적 효능감의 영향력도 유효하였다. 이는 한국의 시위는 젊은 층이 주도하며, 정부나 정치 체제가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지각이 높을수록 시위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교육과 소득의 영향은 정치적 지식과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시위도 서구처럼 중산층이 주도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 이념, 그리고 성격적 특성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러한 시도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주관적 이념이 다른 전통적 요인에 비해 시위 참여의 주요한 동기가 되며, 성격적 특성은 그 참여동기를 실제 시위 참여로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수행되었다. 더불어 개인의 성격이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한국의 시위 참여 연구에서 성격적 특성을 소홀히 다루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이기도 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성격적 특성 중 외향성과 개방성 및 진보적 이념은 그 자체로 시위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진보 정당 지지와 친화성은 시위 참여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둘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개인의 성격 중 외향성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참여 동기로서 가치관과 이념을 실제 직접적 행동으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도 유효하였다. 낮은 연령과 높은 교육 및 소득 수준, 그리고 외적 효능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적 효능감은 시위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변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시위 참여의 직접적인 요인은 가치관보다는 주관적 이념과 개방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의 영향이 더 강하며, 특히 외향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를 이끌지 못하더라도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 결합하여 시위처럼 높은 참여비용이 요구되는 직접적 행동을 이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도 서구처럼 시위가 관습정치的一部分이 되는 운동사회(Meyer and Tarrow 1998)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위의 일상화가 본격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2016-17년 촛불집회는 그 흐름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였던 시위는 2021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도묘연 2022).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시위는 시민들이 항의를 표출하는 일탈적인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정치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운동사회의 전환이 뚜렷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내에서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심리의 영향력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의 경우는 개인의 빅 5 성격이 투표참여를 포함한 시위, 청원, 정치 토론 등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활동, 결사체와 같은 네트워크 활동의 관여도, 이념 및 정치적 신뢰 등과 같은 정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구조와 같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가치관과 태도와 같은 개인 수준의 요인을 중심으로 시위 참여 요인을 분석했으나,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촛불집회 이후의 일반 시위 참여에서도 개인의 성격적 특성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한 만큼, 향후 시위를 포함한 제도적 및 비제도적 정치참여 연구에서 정치심리 연구와 갈등의 정치(contentious politics) 연구를 연결시키는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의 촛불집회와 일반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진보적 이념과 잉글하트의 논의에 천착해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향적 성격이 결합될 경우에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은 시위 참여를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보수적 이념과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분단이라는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정을 바라는 대중의 욕구 또한 시위 참여의 잠재적인 동기로 유효하며, 외향성이 실제 직접적 행동을 이끄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촛불집회

에 맞불로 진행된 보수 지향의 태극기 집회를 경험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중의 요구를 광장이나 거리에서 표출하는 계기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발견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모형과 자료의 제약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자료 수집의 시점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된 총선 이후였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촛불집회와 일반 시위 참여를 구분하는 측정 문항을 제시하는 노력은 기울였다. 그럼에도 향후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주장을 다시금 검증하여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태. 2005. “부산시민 정치참여 수준 및 구조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5집 3호, 227-248.
- 김기동 · 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권 2호, 5-39.
- 김대욱 · 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권 4호, 43-62.
- 김육. 2010.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거시적 변화에 따른 미시적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33-59.
- 김육.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16권 2호, 27-59.
- 김지범 · 강정환 · 김석호 외.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81-110.
-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3호, 83-104.
- 도묘연. 2021.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30권 1호, 93-125.
- 도묘연. 2022. “한국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5권 1호, 35-71.
- 류태건. 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정치학회보』 21집 3호, 383-416.
- 류태건. 2012. “정치참여와 정치신뢰: 그 유형의 다양성과 관계성.” 『21세기정치학회보』 22집 1호, 273-308.
- 류태건. 2013. “한국사회 정치향의 변화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3집 2호, 47-73.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 정치연구』 14권 1호, 147-193.
- 송경재. 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는 참여적인가?: 미국의 정치참여 유형과 SNS.” 『한국과국제정치』 30집 3호, 59-94.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193-214.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25-43.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집 4호, 287-313.
-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집 3호, 791-820.
- 장수찬. 2005. “개인의 네트워크 자원과 정치참여 수준 -대전지역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4권 1호, 141-171.
- 정병기. 2018. “68혁명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 운동양상의 변화와 의미.” 정병기·도묘연·김찬우. 『2016-17년 촛불집회: 민주주의 민주화, 그 성격과 의미』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5-225.
- 정한울·이곤수. 2013.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19권 1호, 211-243.
- 조기숙, 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 주인석·이진석. 2012. “반(反)정당감정의 기원과 정치참여행태: 부산, 광주광역시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5집 1호, 147-176.
- 차현진. 2022. “정치적 이념과 한국 시위 참여자의 변화: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부와의 이념 거리를 중심으로.” 『OUGHTOPIA』 36권 3호, 137-177.
- Anderson, M.R. 2009. “Beyond Membership: A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Behavior* 31(4): 603-627.
- Bekkers, Ren. 2005.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Relations with Resources,

- Personality, and Political Values.” *Political Psychology* 26(3): 439-454.
- Brandstätter, Hermann and Karl-Dieter Opp. 2014. “Personality Traits (“Big Five”) and the Propensity to Political Protest: Alternative Models. *Political Psychology* 35(4): 515-537.
- Campbell, Angus, Peter E. Converse, William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Caprara, Gian Vittorio and Michele Vecchione. 2013. “Personality Approaches to Political Behavior.” Leonie Huddy, David O. Sears, & Jack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23-58.
- Cha, Hyun-Jin. 2016. “Unexpected Combination: Personality Traits and Motivating Factors for Human Rights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3(2): 17-37.
- Cho, Kisuk and Hye Yun Park. 2019. “Who Protest and Why?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Civic Activism Since 2000.” *Korea Observer* 50(4): 535-563.
- Choi, Doo-Hun and Dong-Hee Shin. 2017. “A Dialectic Perspective o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and Civic Participatio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2): 151-166.
- Corrigall-Brown, Catherine. 2012. *Patterns of Protest: Trajectories of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Alix Van Sickle, and Steven Weldon. 2010. “The Individual-Institutional Nexus of Protest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51-73.
- Dalton, Russell. 2014.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Sixth Edition. Los Angeles: SAGE, CQ Press.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03. *American Public Opinion*. New York: Longman. 6th ed.

- Fuchs, Dieter and Hans-Dieter Klingemann. 1990. "The Left-Right Schema." M. Kent Jennings and Jan W. van Deth, eds. *Continuities in Political 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olitical Orientations in Three Western Democracies*, Berlin: Walter de Gruyter. pp.203-234.
- Gallego Aina and Daniel Oberski. 2011. "Person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on Hypothesis." *Political Behavior* 33: 1-27.
- Gamson, William A. 1990.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Gerber, Alan S., Gregory A. Huber, David Doherty, Conor M. Dowling, and Shang E. Ha. 2010. "Personality and Political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Issue Domains and Political Contex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111-133.
- Gosling, Samuel D., Peter J. Rentfrow, and William B. Swann Jr.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Ha, Shang E. 2019a. "Personality Traits and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Sociology* 48(4): 585-607.
- Ha, Shang E. 2019b. "Personality Correlates of Political Support: Evidence from South Korea."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7(4): 207-225.
- Ha, Shang E. & Seokho Kim. 2013.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South Korea." *Social Indicator Research* 111: 341-359.
- Ha, Shang E., Seokho, Kim, and Se Hee Jo. 2013.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olitical Psychology* 34(4): 511-532.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 Oliver P. and Sanjay Srivastava.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Lawrence A. Pervin and Oliver

-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102-138.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 Klandermans, Bert.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Protest*.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Lane, Robert E. 1959. *Political Life: Why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Kecskemeti, Paul, eds. *Karl Mannheim: Essays*. Routledge pp. 276-322.
- McAdam, Doug. 1992. "Gender as a Mediator of the Activist Experience: The Case of Freedom Summ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5): 1211-1240.
- McCrae, Robert. R., and Paul T Costa.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NY: Guilford.
- McLellan, David. 1986. *Ide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1998.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Mondak, Jeffery and Karen D Halperin 2008.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Personality and Politic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2): 335-362.
- Mondak, Jeffery J., Matthew V. Hibbing, Damarys Canache, Mitchell A. Seligson, and Mary R. Anderson. 2010a. "Personality and Civic Engage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Trait Effects o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85-110.
- Mondak, Jeffery J., Damarys Canache, Mitchell A. Seligson, and Matthew V. Hibbing.

- 2010b. "The Participatory Personalit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1): 211-221.
- Omoto, Allen M., Mark Snyder, and Justin D. Hackett. 2010. "Personality and Motivational Antecedents of Activism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78(6): 1703-1734.
- Opp, Karl-Dieter and Hermann Brandstätter. 2010. "Political Protest and Personality Traits: A Neglected Link." *Mobilization* 15(3): 323-346.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chlozman, Kay Lehman, Nancy Burns and Sidney Verba.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The Journal of Politics* 56(4): 963-990.
- Taylor, Verta and Nella Van Dyke. 2004. "Get Up, Stand Up': Tactical Repertoires of Social Movements." David A. Snow, Sarah. A.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 Malden and Oxford: Blackwell. pp.262-293.
- Verba, Sidney, Nancy Burns, and Kay Lehman Schlozman. 1997. "Knowing and Caring About Politics: Gender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Journal of Politics* 59(4): 1051-1072.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inschenk, Aaron C. 2017.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Evidence from 24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98(5): 1406-1421.
- Wiltfang, Gregory L. and Doug McAdam. 1991. "The Costs and Risks of Social Activism: A Study of Sanctuary Movement Activism." *Social Forces* 69(4): 987-1010.

Political Ideology,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Big 5) for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Do, Myo-Yuen | Keimyung University

Cha, Hyun-Jin |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rotesto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personal values, political ideology, and personality traits (Big 5). Specifically, the study identifies materialistic and post-materialistic values, as well as political ideology, as the major motivating factors for protest participation. Furthermore, individuals having high levels of values or liberal ideologi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rotests when they are extraverted or open to new experienc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iberal ideology, extraversion, and openness are direct factors that influence protest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However, the direct impact of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values on protest participation has not been confirmed. In addition, extraversion is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s on protest participation by interacting with materialistic values and conservative ideolog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sonality traits, which have not been considered significant factors in affecting Korean protest participation thus far, can significantly influence an individual's protest participation.

Key Words | Protest Participation, Personality Traits(Big 5), Political Ideology, Values, Extraversion, Openness